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4.04

모하메드 바트 - 어느 카슈미르 남자의 증언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모하메드. 그가 떠난 후, 그가 제자로 삼았던 이들은 격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원한 열매를 맺고 있다.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모두 신실한 증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는 어떤 대가를 치를지 알 수 없을 때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증인들이 뿌린 씨앗을 통해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리로 무장한 인도의 아메드Ahmed는 모하메드Mohammed라는 무슬림에게 신앙성경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메드의 증언을 사용하셔서 모하메드를 위험한 선교 개척지의 전도자이자 교회 개척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모하메드는 무슬림인 마무드Mahmud를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마무드는 또 다른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7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하메드를 더 이상 봐줄 수 없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하메드의 순교로 뿌려진 심겨진 씨앗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무드와 무슬림 출신 기독교 개종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역을 신실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지에는 아메드와 모하메드, 마무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에서는 이들에게 양육받은 또 다른 기독교인의 신실한 증인된 삶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슈미르를 위한 투쟁

카슈미르는 인도의 다른 지역들과 종교적, 문화적으로 극심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카슈미르 계곡 거주민 400만 명 중 97%가 무슬림인 반면, 인도는 전체 인구의 거의 81%가 힌두교이다. 지역 내 이슬람교도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이러한 종교적 이교 문화적인 불균형이 갈등과 폭력을 조장해왔다.

1990년 초, 카슈미르 계곡에서 한 무장 단체가 등장해 인도의 영유권 주장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살이던 아메드는 한쪽을 선택해야 했다. 그는 무장 세력을 자유의 투사로 여겼다. 아메드의 충성심은 이웃 나라인 파키스탄과 연관이 있는 가족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파키스탄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카슈미르의 지배권을 놓고 1947년부터 인도와 싸워왔다. “이맘(Imam, 이슬람교 성직자들)들은 기도를 촉구할 때조차 ‘자유! 자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유입니다!’라고 외치거든요. 모두가 인도 사람을 증오했어요.” 아메드가 말했다.

무장 단체들은 각 가정마다 아들들을 카슈미르의 자유를 위한 투사로 바치라고 촉구했다. 청년들은 투쟁하다 죽는다면 낙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아메드의 많은 친구들은 인도 영유권 분리주의 단체에서 훈련을 받기 원했고, 아메드 역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

분쟁에 휘말리다

어느 날, 무장 세력과 정부군이 거리에서 충돌하게 되었다. 아메드는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집 안에 있다가, 다음날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그날 목격된 죽음과 파괴는 반군에 대한 아메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그는 싸움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다.

2개월 후, 마을에 인도 군인들이 와서 아메드를 비롯해 25명의 남성을 반란 가담 혐의로 체포했다. 군인들은 이들을 구타하고 심

문한 뒤 노동 수용소로 끌고 갔다.

아메드가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그에게 도시가 더 안전할테니 그곳으로 도망치라고 간절히 권했다.

빛을 찾아서

아메드는 카슈미르에서 겪은 일로 인한 트라우마와 가족과 도망쳐야 했던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고 말았다.

당시 기독교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메드의 여동생은 교회 목사님에게 오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목사는 병원에 있던 아메드를 문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역대하 7장 14절을 읽어 주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메드가 말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치유함을 받았거든요.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드가 이슬람교를 떠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가족과 친구들은 그를 배척했다. 아메드는 “그래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께 내 주변 사람들을 인도하길 소망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메드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작은 가정 교회에 출석했다. 1992년 5월 10일 세례를 받은 그는 이웃 힌두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부르심을 느꼈다.

그해 10월, 아메드는 어느 목사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시는 구절이었다. 아메드와 또 다른 세 사람이 손을 머리 위로 들면서 이사야와 똑같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항에 부딪히다

아메드를 비롯한 전도자들은 앞으로 7년간, 매일 50가정을 방문하며 도시 전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서약했다. 아메드는 “전도하러 나가는 건 좋았는데 성경을 충분히 배우진 못한 상태였어요”라고 말했다. 목사님이 매일 아침 성경 공부를 도와주기로 했고, 아메드는 지역 공동체로 나가 배운 말씀을 나누었다.

많은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기독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 그 지역을 통제하는 힌두교 민족주의 단체인 ‘힌두교 민족 봉사단(Rashtriya Swayamsevak Sangh, 이하 RSS)’에게까지 전해졌다. 아메드와 전도팀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어느 날, RSS 대원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메드가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나 아메드와 전도자들은 위협을 무시했다. 7년간의 서약을 완수하기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 팀이 세운 일곱 교회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아메드가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메드는 꿈을 꾸었다. 그는 피가 가득한 어느 계곡을 보았다. “카슈미르로 갈 거야.” 아메드가 아내에게 말했다.

현신적인 제자

다른 현지 전도자들과 사역하기 위해 카슈미르로 돌아온 후, 아메드는 모하메드 바트(Mohammed Bhat)라는 무슬림 남성을 만났다. 아메드는 그에게 신약성경을 건넸다. 그 책은 모하메드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모하메드는 우리와 기도회에 참여했고, 예수님을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였어요.” 아메드가 그를 회상하며 말했다.

모하메드는 곧 겁이 없고 열정적인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하메드는 기독교 개종자들을 담대하게 양육하면서 성경과 영화 『예수』의 사본을 배포했다.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모하메드를 카슈미르 교회의 지도자로 여겼다.

모하메드는 살해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아메드 역시 주변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친구나 친척, 이웃 같이 가까웠던 내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이슬람교 율법학자는 나에게 대한 공개 비난으로 ‘파트와(fatwa)’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친구들께겐 버림받았지만, 난 그분께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아메드는 전도 활동을 오히려 두 배로 늘렸다.

무슬림 금식 기간인 라마단(Ramadan) 한 달 동안, 아메드는 오디오 카세트에 복음을 담아 무슬림들에게 배포했는데, 이러한 그의 대담함에 분노한 일부 무슬림들이 그를 공격했다. 이 공격 후, 아메드는 전도 방식을 약간 바꾸어 버스나 다른 공공장소에 카세트와 성경책을 남겨두었다.



- ▲ 호수가 아름다워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카슈미르 계곡
- ◆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영토 분쟁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카슈미르 계곡 지역

문 앞에 닥친 공포

이후 10년 동안, 아메드는 사역을 위해 계속된 위협과 구타를 견뎌냈다. 가장 큰 위협은 카슈미르 이슬람 단체인 히즈블 무자헤딘(Hizbul Mujahideen)이 보낸 경고장이었다. “카슈미르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러 가겠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번 이사를 했는데도 자신의 현재 주소가 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려웠지만, 그렇게 죽임당할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아메드는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다.

계속된 투쟁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아메드의 가족은 185번 이사를 했다. 1년에 거의 10번씩 이사를 한 셈이었다. 아메드는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계속해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알고 있다. “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구도 이 땅에서 나를 없애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메드가 말했다.

아메드의 목표는 카슈미르 10개 지역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각 지역에 세울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네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핍박은 사역의 일부입니다. 핍박이 올 때, 사역이 성장합니다”라고 아메드는 말한다.

2024년 4월 기도 달력

 facebook.com/VOMKorea.kr
 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1	2	3	4
	 쿠웨이트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오만 홀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이 하나님 임재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도록	 베냉 가족과 마을 주민들에게 구타당하고 때론 죽임당하는 새신자들을 위해	 카타르 카타르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
7	8	9	10	11
 투르크메니스탄 자신이 체포한 기독교인의 간증으로 마음을 연 정보부 요원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가족의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고 신실했던 무살람에 대해 주님께 감사	 에티오피아 복음을 전하다 핍박에 직면한 데레제 목사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	 카메룬 과격파 무슬림들에게 공격당한 북서부 국경 지대 기독교인들을 위해	 요르단 요르단에 온 시리아 난민들을 보살피는 사역자들을 위해
14	15	16	17	18
 베트남 믿음 때문에 방화로 집이 불타버린 딘 호크 가족을 위해	 스리랑카 계속 증가하는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킬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 전도가 불법이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역자들에 지혜를 주시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왕족 가운데 많은 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도록	 말리 말리나 타지에서 납치되어 끌려온 선교사들을 위해
21	22	23	24	25
 부탄 정부가 성경 배포를 제한해도 하나님 말씀이 부탄 전역에 퍼지도록	 타지키스탄 비밀경찰에 심문받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무장조직들이 활동하는 시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위해	 니제르 기독교인이 수는 적지만 무슬림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잘 전하도록	 인도네시아 가혹한 이슬람법에도 무슬림들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찾도록(롬7:6)
28	29	30		
 쿠바 쿠바 목회자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파키스탄 젊은 기독교인 여성들을 무슬림과의 강제결혼에서 지켜주시기를	 우간다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지도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지금 보고계신
순교자의 소리 무료 소식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박해를 당하는 무슬림 출신 인도 기독교인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인도에서는 대부분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주민 97%가 무슬림인 인도 카슈미르 계곡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험한 카슈미르에서 기독교인 마무드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본 소식지 4쪽 참조)

순교자의 소리는 안전가옥과 훈련 센터를 제공함으로써 마무드처럼 무슬림이었던 카슈미르의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안전가옥에는 15명의 성도가 머물고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6개월 정도 안전가옥에 머물며 숙소와 음식을 제공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실한 증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교재와 자료들을 지원받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숙소와 음식 및 신실한 증인 되기에 필요한 자료를 지원해주는 사역에 바로 지금 동참해주세요!

이 귀한 사역에 동역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나 성도님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순교자의 소리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
(납부 유형에서 ‘인도’ 선택)
2. 계좌이체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 소리
(본인 성명 옆에 ‘인도’이라고 기재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안전가옥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후원금은 인도와 남아시아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다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can me!

금요일	토요일
5	6
시리아 시리아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알제리 알카에다 주둔지 내부와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베르베르족을 위해
12	13
탄자니아 인구 99%가 무슬림인 잔지바르섬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코모로 가족에게 배척당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19	20
키르기스스탄 기독교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자리와 생필품을 구할 수 있도록	수단 복음 전파를 이유로 심문과 괴롭힘을 당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26	27
에리트레아 정부 추적에도 에리트레아 전역에 하나님 말씀이 퍼질 수 있도록	예멘 공격당한 뒤에도 교회들이 계속 예배드리며 복음을 선포하도록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Christian Council for Financial Transparency Korea
1호 인증

새로운 이야기의 대제목

다시 세운 기도의 집

2010년 어느 날, 이슬람 사원에서 기도하던 마무드Mahmud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마을 누군가에게 이를 털어놓았고, 모하메드 바트라는 기독교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많은 무슬림이 예수(Isa,이사)를 선지자로서는 존경해도, 그리스도(구원자)라는 성경적 이해는 갖고 있지 않다. 40세의 마무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하메드는 내 인도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려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위험한 비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 계층을 돕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하메드는 카슈미르 계곡에서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시작했고,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자훈련 운동을 이끌고 있었다. 그리고 카슈미르 전역에 성경과 영화 『예수』를 배포하고 있었다.

마무드는 모하메드를 만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듣게 된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마무드는 이슬람교를 떠나고 싶어졌다. 그렇게 6주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들에 관해 배운 후 마무드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 삶 가운데 더 큰 평안을 느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지자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무드는 아내와 여덟 살짜리 딸에게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전해

주기 시작했다. 이내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마무드는 같은 마을 친구 다섯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모하메드에게 받은 성경을 한 권씩 선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300가구 중 다섯 가정이 매주 주일마다 마무드에 집에 몰래 모여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하지만 비밀은 결국 탄로나고 말았다. 2011년 어느 날, 마무드가 가족과 대도시인 스리나가르Srinagar에 가느라 집을 비운 사이, 무슬림 사내들이 와서 그의 집을 부숴버렸다. 이웃이 마무드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공격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와 가족들은 일단 그곳에 머물러 있기로 했다.

카슈미르에서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스리나가르에서 마무드 가족은 새로 세워진 작은 가정교회에 합류했다. 마무드는 스리나가르 무슬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괴로웠다.“ 기독교인인데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면 언제 쫓겨날지 몰라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경우, 집이 파괴되었잖아요. 아내와 딸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사람은 마무드의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소식

그러던 어느 밤, 마무드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2015년 7월 1일 저녁, 4명의 복면을 쓴 무장 괴한이 모하메드의 집에 들이닥쳐 그를 밖으로 끌어낸 뒤 총을 일곱 발이나 난사해 목숨을 빼앗았다는 것이었다. 그의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복음 선포가 그 이유였다. “모하메드는 날 주님께 인도해준 사람이었어요. 그를 잃은 건 내 믿음에도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어요.” 마무드가 고백했다.



이후 2018년 어느 날, 마무드의 마음 속에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났다. 마무드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집을 재건하고 싶었다. “집이나 가족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걱정스러웠지만, 오직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이때를 회상했다.

가족이 새 집에 정착하자 마무드는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제자를 삼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진리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아야만 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무드가 말했다.

마무드는 10가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들은 비밀리에 마무드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을 찾아가서 내가 기도의 집 비슷한 걸 만들었으니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시작됐어요”라고 마무드는 말했다.

최근 마무드는 스리나가르에서 6개월 간의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했다. 무슬림들에게 복음과 성경 말씀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수간한 것이다. 마무드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기 때문에 오디오 성경을 사용해 성경을 연구했고, 공부한 내용은 누군가에게 받아 적도록 했다. 과정을 마친 후, 마무드는 최우수 학생으로 선정되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마무드는 예전에 자신의 집을 파괴한 것이 다른 마을의 무슬림들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나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마무드가 말했다.

길을 인도하는 사람

순교한 모하메드의 영향력은 지금도 마무드의 삶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약 5년 전, 무슬림이 대부분인 마무드의 마을에서 그가 마을 지도자로 선출된 일은 누구보다 그를 매우 놀라게 했다. 모하메드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선출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마무드는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마을 지도자로 선택한 건 내가 기독교인이 된 후, 성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부도덕한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자선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인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을 지도자인 마무드는 정부가 지원한 물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담당한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이나 공공 산업과 관련해 마을과 지방 정부 간의 중재자 역할도 맡고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진 마을에 도로가 없었어요. 내가 지도자가 되면서 도로가 생겼고 주민들이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를 이끄는 일을 즐겁게 하고는 있지만 마무드는 이 직책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선출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사회에서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는 그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주민들은 마무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교회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다면 자신과 가족이 다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을에 교회가 있는 걸 알면, 또 파괴할 거예요.”

마무드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 조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환영하기도 한다. “나는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큰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짊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무드가 말했다.

마무드는 앞으로 카슈미르 지방에서 감당할 사역과 아울러 자신의 가족과 집을 보호해주시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향력이 커져서 이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그리스도께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 모하메드가 사역할 당시, 카슈미르 계곡에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격렬히 반대하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



▲ 자신의 집에 기도실을 마련해 대부분이 무슬림인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역 중인 마무드

2024년 순교자의 소리 지하신학교 1기생을 모집합니다!

신약의 사도 시대부터 개신교 종교개혁자들, 한국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신실하게 고백할 때만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고 신실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라고 말씀한 것들을 꼭 붙잡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고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개월의 지하신학교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사도 시대부터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 초기 한국 기독교인들에 이르기까지 항상 증언해 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6가지 신앙고백에 대한 깊은 진정한 의미를 매월 하나씩 공부할 것입니다. 이 6가지 신앙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의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통해 이 신앙고백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꼭 필요한, 유일한 교육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하신학교는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하고 신실한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각각의 훈련생들을 준비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목적이자 부르심입니다.

지하신학교는 2개의 장소, 포천과 무주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6개월 과정: **금요일 저녁 7시 ~ 토요일 오후 5시까지/월 1회(1박 2일 오프라인)**
- 포천 (4/12~13, 5/10~11, 6/14~15, 9/6~7, 10/11~12, 11/8~9)
- 무주 (4/26~27, 5/31~6/1, 6/28~29, 9/27~28, 10/25~26, 11/22~23)
(주소나 구체적인 정보는 등록 시 알려드립니다.)

- **훈련비: 500,000원** (6개월 과정, 숙소/식사 제공)
- **신청방법 및 문의: 02-2065-0703/010-3151-2065**

사도적 신앙 고백

01.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다윗의 자손으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02.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03. 예수 그리스도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04.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0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오른쪽에 앉으셨다.
06.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2024년, 탈북민들의 국악 공연 "존 로스 성경 역사극"에 동역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공연 시설을 갖춘 교회를 추천해주세요!
(서울/대전/부산/그 외 지역)
- 공연무대: 음향, 분장, 조명(렌탈 포함)
- 촬영: 공연 실황 영상 및 사진 촬영

위 분야에 동역하기 원하시면
010-3151-2065로 연락주세요.

오른쪽 QR코드를 통해 존 로스 성경 역사극의 최신 소식을 확인하세요!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신실한 증인이 되는 법을 제시하는 책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리처드 웹브란트/에릭 폴러
각 10,000원

동성애를 비롯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웹브란트와 폴러 목사가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회복을 위한 책



『새 하나님, 새 민족』
15,000원

『온전한 헌신』
1,2
각 10,000원



『영웅의 여정』
10,000원



『믿음의 세대들』
10,000원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돕는 책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마르크스와 사탄』 10,000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0,000원
『웹브란트』 15,000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5,000원

전 세계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21 - 콧순교자들의 땅에 다녀오다』 10,000원
『이슬람이나 죽음이나』 10,000원
『IS와 감옥 안에서』 10,000원
『공산주의는 죽지 않았다』 10매 1세트 10,000원

존 로스 성경 & 조선어 성경



『21C 존로스독자판 (누가복음전서)』 1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창세기/신약)』 10,000원
『조선어 스터디 성경』 30,000원 (SOLD OUT)
『조선어/쉬운 영어 성경 (창세기/신약)』 15,000원

사무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층
문의 02-2065-0703 (화-토 9:00-5:00)

www.vomkorea.com/donation
후원계좌: 국민 463501-01-243303

도서 구매는 아래 계좌를 이용해 주세요.
국민은행 463501-01-244988